



STUDENT NUMBER

CENTRE NUMBER

HIGHER SCHOOL CERTIFICATE EXAMINATION

1999

# KOREAN

## FOR BACKGROUND SPEAKERS

2/3 UNIT (COMMON)

### SECTION II

## PROCESSING WRITTEN INFORMATION

(20 Marks)

Total time allowed for Sections I, II, III and IV—Three hours  
(Plus 5 minutes reading time)

#### DIRECTIONS TO CANDIDATES

- Write your Student Number and Centre Number at the top right-hand corner of this page.
- The question in this Section is **COMPULSORY**.
- Answer the question in the spaces provided in this paper.
- The answer **MUST** be written in **KOREAN**.
- Allow about 45 minutes for this Section.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어로 다음 문제를 완성하십시오.

Complete the following question in KOREAN, using the written information provided.

### QUESTION 5

어느 신문사로부터 '올바른 한국어와 외래어 사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부탁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주어진 세 글을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150 내지 200단어의 논설문을 한국어로 쓰시오.

For a newspaper, you have been asked to write an article entitled 'Proper use of Korean language'. Write the article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the following three passages in 150–200 words in KOREAN.

### PASSAGE 1

명희: 흰 나리꽃이 뭐지 아니? 백합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야.

경수: 그런데 왜 우리들은 보통 댐 이런 순우리말을 쓰지 않지? 우리들의 언어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냐?

진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을 따라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야. 아무리 몇몇 사람들이 '백합을 흰 나리꽃'이라 해 봐야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연주: 그래도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사라진 우리말을 찾아 쓰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독특한 우리 문화를 키울 수 있지.

명희: 간판이나 상표 등에 영어나 일본어 그리고 국적도 모를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도 큰 문제야. 세종대왕이 이 곳에 다시 오신다면 통탄하실 거야.

미연: 우리말이 사라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외래어가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 왜냐 하면 어차피 순우리말이건 외래어이건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여지면 모두에게 익숙해질 테고 그렇게 되면 외래어라도 우리말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별 문제가 안될거야.

재욱: 우리 나라도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외국어를 자국어화하는 노력을 해야 해. 그것이 요즘 말하는 세계화 아닐까?

경수: 세계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잘 알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해. 세계화랍시고 외래어를 마구잡이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라진 우리말을 찾아내어 쉽게 사용하며 잃어버린 우리 정신을 찾아나가야 해. 그리고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써 온 외래어는 우리 말로 고쳐 쓰고, 한자의 탈을 쓴 일본어도 순우리말로 고쳐 나가야 해.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세계 속에 우리의 독자적인 본 모습을 널리 알리는 길이 아닐까?

〈천재 기본논술, 강연의 외, (주)천재교육 1996〉

## QUESTION 5 (Continued)

## PASSAGE 2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말이 들어와 우리말을 밀어내고 우리말의 기를 죽이는 시대에 나는 우리말이 지닌 희망의 싹을 미국에서 보았다.

'도우미 구함'

뉴욕, 정확하게 말하면 뉴욕이 내려다 보이는 소도시 포틀리에 있는, 한 한국 음식점에 붙어 있는 구인 광고다. 영어의 '헬퍼 원티드(Helper wanted)'에 해당한다. 그 구인 광고 쪽지를 보는 순간 어찌 그리 좋던지. 나는 '서클'을 몰아낸 '동아리'를, 잊혀져 가던 말 되살리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영어의 본바닥에서까지 '헬퍼'를 몰아낸 '도우미'를 조어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는다. 나도 '도우미' 같은 말을 만들어내고 싶다.

〈신동아, 동아일보사, 1998〉

## PASSAGE 3

국민의 눈과 귀라 할 수 있는 언론 매체가 올바른 국어를 써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꼭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요즘 신문이나 방송의 제목으로 한글 표기의 외국어(주로 영어)를 쓰거나 아예 영문자로 표기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 마치 언론사들이 영어 쓰기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보일 정도이다. 올바른 우리 말글 사용에 앞장서야 할 언론 매체들이 오히려 외래어, 외국어를 남용하여 우리 말글을 오염시키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것은 우리 신문이나 방송이 주체성을 잃어 가고 있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으로, 독자나 시청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우리의 말글 생활을 혼란시키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화하면서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초등학교에까지 영어 교육이 도입된 이 마당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무슨 고집스런 이야기냐고 할지 모르나, 목적에 의한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말글 생활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한글새소식, 한글학회, 1997〉

Question 5 continues on page 8





BLANK PAGE

BLANK PAGE

BLANK PAGE